



법정계량단위 사용 협조

I. 배경

-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국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(국제단위계: SI단위)사용을 권장하고 있음
- 그동안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홍보·교육·지도·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평·근·야드 등 비법정계량단위가 사회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
- 또한 언론기관(신문, TV 등)의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선도해야할 일부 언론기관에서 아직 비법정계량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법정계량단위 사용 조기 정착을 위해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됨

※ 법정계량단위란

-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
- 우리나라는 국제법정계량기구에서 권고하는 국제단위계(SI단위)를 『계량에관한법률』에서 채택하여 법정계량단위로 정하고 있음
- * SI단위(국제단위계) :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

II.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

법정계량단위 사용은 정확성·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공정거래의 기본

- 상거래에 척관단위(근, 관, 돈, 평 등)를 사용할 경우 물건의 종류, 거래장소 등에서 계량단위가 서로 달라 소비자 손해 및 거래 질서 혼란
- SI단위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야드-파운드 단위(야드, 인치, 파운드, 온스)를 사용하면 법정계량단위로 환산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, 정확한 계량에 어려움이 있음
- 실생활에서 인치(예:양복점) 및 마, 자(예:포복점) 사용 등의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면 필요한 길이를 쉽게 예측할 수 없으나, 법정계량단위인 미터를 사용하면 계량이 간편해 짐
- 귀금속의 경우 "돈", "냥"은 정수단위 거래가 아니어서(1돈 = 3.75g) 소비자의 피해가 항상 우려되나, 법정계량단위인 g 단위를 사용하면 정수거래를 생활화 할 수 있음

- SI단위를 사용하면 미세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국가측정표준의 선진화 및 정밀측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음
- 선진국에서도 SI단위를 채택·사용하고 있으며 국제거래에서도 SI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고 있음

※ 언론보도에서 사용된 비법정계량단위 예

- 바다가 준 '뜻밖의 선물' 퇴적지 1000만평 유부도 갯벌 개발 '논란'
- <최경주, 카브레라와 1홀차 접전> 7072야드
- <국제유가 연일 최고가 행진> 배럴당 46.23달러를

Ⅲ.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실태

① 언론보도에서 자주 사용 되는 비법정계량단위

언론 보도

- 면적을 나타내는 평(坪) 단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
- 길이에서는 야드, 인치
- 무게는 온스와 파운드 순으로 나타났음
- ※ 일반국민은 언론에서 사용하는 비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오인

②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비법정계량단위 : 평

토지 · 건물

- 면적을 나타내는 평(坪) 단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
- 길이에서는 야드, 인치
- 무게는 온스와 파운드 순으로 나타났음
- ※ 일반국민은 언론에서 사용하는 비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오인

③ 품목과 지역간 거래단위가 상이

질량 · 부피 · 넓이

분 야	비법정단위	실거래 단위
질 량	1근	소고기 600g, 포도·딸기 400g, 채소 375g
부 피	1되	옥수수 750g, 들깨 450g, 팥 800g
넓 이	1평	토지 3.3㎡, 유리 0.09㎡
	1마지기	경기 150평, 충청 200평, 강원 300/150평

④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따른 해외 문제 사례

자동차 사고

- 자동차 사고 원인 : 속도 단위가 다른 탓
 - 캐나다 : 킬로미터, 미국 : 마일
- ※ 사고원인 : 운전자가 마일로 운행하다가 미터로 표시된 속도표시판을 보고 오인하여 과속사고 발생 (1 mile = 1.6 km)